

# KIA 변화 소용돌이 언제까지…

## 선동열, 올들어 세번째 코치진 개편

### 선수구성도 대폭 변화중

점체일로를 걷고 있는 KIA의 내부가 소용돌이 치고 있다.

KIA 선동열 감독은 13일 백인호 작전코치와 이건열 타격코치를 2군으로 내리고 김종국 코치를 1군으로 불러들였다.

을 시즌 세 번째 코치진 이동이다.

선 감독은 시즌 초반 마운드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자 다카하시 투수 코치와 조규재 코치의 자리를 맞바꿨다. 지난 5일에는 팀의 안방을 책임졌던 차일록에 이어 부진이 계속된 김상훈의 엔트리를 말소하면서 정회열 배터리 코치도 함께 2군으로 내려보냈다.

KIA는 지난 12일 네선과의 원정 경기에 서 장단 19안타를 얻어맞으면서 0-13으로 대패를 당했다. 선발투수 소사가 1회부터 5 실점으로 무너졌고, 2회초 무사 1·2루의 기

회에선 나지완의 플라이와 김원섭의 병살타가 나오면서 득점에 실패했다. 3회초 2사 2루에서는 김선민의 좁은 충전안타에 이준호가 훔을 과고들다 아웃되면서 추격의지가 꺾였다. 선발의 조기 봄파와 함께 득점기회를 잇달아 허무하게 날리면서 KIA는 0-13 패의 수모를 당했다.

결국 13일 코치진 개편이 이뤄졌다. 김종국 코치가 백인호 코치의 자리를 대신하며 이건열 코치의 공백은 이순철 수석코치가 채울 예정이다.

KIA는 투타의 불균형에 수비 불안까지 겹쳐면서 순위싸움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성적은 고요하지만 선수단 내부에는 변화의 소용돌이가 계속되고 있다.

코치진뿐만 아니라 선수구성도 대폭적인 변화 중이다. 꾸준하게 1군 마운드에 뛰었던 선수는 윤석민·서재웅·양현종·유동훈·한기

주 정도. 설상가상 서재웅이 어깨 근육 통증으로 한 차례 쉬어간데 이어 윤석민도 팔꿈치 통증으로 13일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포수도 송산·한성구로 모두 바뀌었고, 야수진의 윤관주·이준호·이호신도 변화의 인물이다.

'변화'를 통한 충격요법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렇다할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지난해 전반기를 1위로 마감했던 KIA는 을 시즌 우승 후보로까지 꿈꿨지만 7위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 감독이 팀 리빌딩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유례없는 춤출한 승차싸움이 계속되면서 쉽게 순위다툼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전력으로 격변기를 보내고 있는 KIA의 내부 안정화가 절실했던 시점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한국 골프 위상 높아졌다”

## 최경주·양용은·김경태 US오픈 첫 동반플레이

### 우즈-미켈슨-왓슨 한 조

14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인근 올리피클럽 레이크 코스(파 70·7170야드)에서 개막하는 미 프로골프(PGA) 투어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2012 US오픈은 무엇보다 흥미있는 조 편성으로 관심을 끌고 있다.

최고의 빅카드는 태이거 우즈-필 미켈슨-버버 왓슨(이상 미국)을 한 조로 묶은 것이다. 최경주-양용은-김경태로 편성된 이른바 '코리안 브라더스' 조도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PGA 투어 8승을 쓴 최경주는 이번 조 편성에 대해 "무엇보다 한국 골프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적인 날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감

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2009년 아시아인 최초로 메이저 대회(PGA 챔피언십) 우승을 차지한 양용은은 "출전하는 한국 선수들이 늘면서 이런 조 편성이 가능해졌다. 한국 선수들을 보고 싶어하는 팬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는 뜻이어서 바람직한 현상이다"며 "동반 플레이어와 한국어로 대화가 가능해 편안하게 경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양용은은 연습라운드를 한 김경태도 "경기를 한다는 측면에서는 똑같지만 항상 편하게 대해 주시는 선배들과 플레이하는 만큼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US오픈에서 첫 동반 플레이를 하게 된 이들은 그러나 한목소리로 이번 대회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사적인 날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감

었다. US오픈은 좁은 페어웨이와 깊은 라프, 딱딱한 그린 등으로 오버과 우승자가 나오기도 하는 등 까다로운 코스 환경으로 악명이 높다.

이틀째 연습라운드를 한 최경주는 "코스가 다양해 정교하고 다양한 기술이 필요할 것 같다. 무엇보다 페어웨이가 좁아 쉽지 않은 경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용은은 "쉬어갈 만한 틀 하나도 없다. 티샷부터 퍼팅까지 매 샷을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하며 초기장 상태로 쳐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경태는 "전반 9홀에서 큰 실수를 하지 않아도 파를 지키기가 어렵겠다"며 "장타를 구사하기보다는 전략적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할 것 같다"고 나름의 전략을 공개했다. /연합뉴스

# 첨단고 역시 볼링 최강팀

## 협회장배 전국대회 우승

### 10개 대회 연속 종합우승

첨단고의 스트라이크 행진이 계속됐다.

첨단고가 13일 창원에서 끝난 제26회 대회장협회장배 전국남녀학생 볼링대회에서 10개 대회 연속 종합우승을 이뤘다.

포수도 송산·한성구로 모두 바뀌었고, 야수진의 윤관주·이준호·이호신도 변화의 인물이다.

'변화'를 통한 충격요법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렇다할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지난해 전반기를 1위로 마감했던 KIA는 을 시즌 우승 후보로까지 꿈꿨지만 7위 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선 감독이 팀 리빌딩을 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유례없는 춤출한 승차싸움이 계속되면서 쉽게 순위다툼을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전력으로 격변기를 보내고 있는 KIA의 내부 안정화가 절실했던 시점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경범·정동익·김한웅·이시영의 우승이 이어졌다. 대회 마지막날에는 김보근이 마스터스 금메달을 추가했고, 김한웅과 김경범이 나란히 개인종합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다. 3인조 동메달까지 더해 첨단고는 지난 시즌에 이어 10개 대회 종합우승을 완성했다.

지난달 대한볼링협회장배에서 전국 최초 전종목 금메달 석권을 이뤘던 첨단고는 을 시즌 3개 전국대회에서 걸린 18개의 금메달 중 15개를 획득했으며 아시안게임, 아시안선수권대회 등 많은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했다.

또 대한핸드볼협회 우수선수상, 체육진흥 공단 체육연금 은장, 제5회 아시안선수권대회 최우수선수상, 무등문화상을 수상했으며 1996년부터는 모교 핸드볼팀 감독으로 활약하고 있다.

아시안게임 핸드볼 국가대표 감독, 국가대표팀 및 주니어 국가대표팀 코치로 활약한 박 감독은 '피봇 맨'으로 활약하며 서울 올림픽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아시안게임, 아시안선수권대회 등 많은 국제대회에서 우승을 했다.

2012 세계대학핸드볼선수권대회는 오는 20일부터 7월 3일까지 브라질 브루메니우에서 열리며 조선대 응준회(체육학부 4), 조태훈(체육학부 3) 대표선수로 박 감독과 함께 한다.

주하늘, 안다빈(이상 체육학부 1)은 주니어 대표선수로 선발돼 오는 17일 카르도 도하에서 개막하는 2012 카르도 초청 4개국 남자주니어 핸드볼 대회와 역시 28일 도하에서 열리는 제13회 아시아남자핸드볼선수권대회에 출전한다.

/체육총기자 chae@kwangju.co.kr

# 한·중·일 주니어 경기

## 실사단 광주 방문

제20회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 실사단이 광주를 찾았다.

지난 12일 광주를 방문한 실사단은 3박4일 일정으로 종목별 경기장과 선수단 숙소로 이용한 호남대 기숙사를 수상했으며 1968년 3개국 청소년들의 스포츠 및 문화교류를 위해 창설됐으며, 3개국이 매년 순차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장성여중 조정팀 창단

장성여중 조정팀이 13일 교내체육관에서 창단식을 갖고 정식 출범했다. 장성여중 조정팀은 유영환 감독, 김우경 코치와 함께 이다인·신선하·신지혜·조민희(이상 3년), 최수빈(2년), 김수인·신재민·전세은(1년) 등 10명으로 꾸려졌다. 2011년부터 조정선수

육성에 들어간 장성여중은 지난해 소년체전 금메달에 이어 을 시즌 소년체전에서도 은메달을 획득했다. 장성여중팀의 정식 출범으로 장성은 활동중, 장성실고, 문화고, 장성군청으로 이어지는 조정의 대표적인 고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광주일보 창사60주년 기념 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밀레「국립공원 16회 고객원정대」모집



▶ 참가신청 : 광주/전라지역 밀레 매장에서 접수 (자세한 사항은 밀레 매장 혹은 www.millet.co.kr)

▶ 참가특전 : 참여하신 모든분께 밀레 기념품 증정

▶ 두번째 산행 6월 21~22일(무박 2일) / 주왕산

\*일정 및 산행루트는 기상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주)밀레 마케팅본부 (02-3153-3143, 4)

| 주 최 | MILET MOUNTAIN BY EXPERIENCE

| 후 원 | 광주일보사



▶ 주 관 | Mtour

| 주 관 | Mtour

| 후 원 | 광주일보사

▶ 주 관 | Mtour

| 주 관 | Mtour

| 후 원 | 광주일보사

▶ 주 관 | Mtour

| 주 관 | Mtour

| 후 원 | 광주일보사

▶ 주 관 | Mtour

| 주 관 | Mtour

| 후 원 | 광주일보사

▶ 주 관 | Mtour

| 주 관 | Mtour

| 후 원 | 광주일보사

▶ 주 관 | Mtour

| 주 관 | Mtour

| 후 원 | 광주일보사

▶ 주 관 | Mtour

| 주 관 | Mtour

| 후 원 | 광주일보사

▶ 주 관 | Mtour

| 주 관 | Mtour

| 후 원 | 광주일보사

▶ 주 관 | Mtour

| 주 관 | Mtour

| 후 원 | 광주일보사

▶ 주 관 | Mtour

| 주 관 | Mtour

| 후 원 | 광주일보사

▶ 주 관 | Mtour

| 주 관 | Mtour

| 후 원 | 광주일보사

▶ 주 관 | Mtour

| 주 관 | Mtour

| 후 원 | 광주일보사

▶ 주 관 | Mtour

| 주 관 | Mtour

| 후 원 | 광주일보사

▶ 주 관 | Mtour

| 주 관 | Mtour

| 후 원 | 광주일보사

▶ 주 관 | Mtour

| 주 관 | Mtour

| 후 원 | 광주일보사

▶ 주 관 | Mtour

| 주 관 | Mtour

| 후 원 | 광주일보사

▶ 주 관 | Mtour

| 주 관 | Mtour

| 후 원 | 광주일보사

▶ 주 관 | Mtour

| 주 관 | Mtour

| 후 원 | 광주일보사

▶ 주 관 | Mtour